



도자기 빚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 흙에 생명을 넣는다

흙을 빚어서 만든

창작이나 솜씨는

그릇 속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부분이 있기에

생명이 숨쉬다

흙 빚으며 아이들 교육에 살림살이 노하우 공유  
'흔 붙어넣는 나만의 작품' 옛 도공들의 숨결 느껴

지난 19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소울아트 도예공방. 공방 대표 이경희(여·50)씨를 비롯, 회원들의 손길이 분주했다. 흙반죽을 밀대로 밀어 모양을 만들고 있는 남정(42)씨, 물레를 돌려 형(形)을 만들고 있는 김영현(50)씨, 성형한 뒤 무늬를 새기고 있는 안금희(42)씨·박옥희(45)씨 등의 표정은 심각했다.

나지막하고 규칙적인 물레 소리만 공방 안을 감쌌다. 김씨 손가락 끝의 미묘한 움직임에 따라 좌우대칭의 흙덩어리가 모양을 조금씩 바꾸더니 어느새 모양새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했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 도자기 공방에는 매일 아줌마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도자기로 맺어진, '도자기 빚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른바 '도자기 네트워킹'이다. 취미 삼아 문화센터 등을 찾아 도자기를 만들다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들이 까리까리 뭉친 것이다. 2년 전 이경희씨가 공방을 낸 뒤에는 틈틈이 찾아 도자기를 만드는가 하면 아이들 사교육·살림살이 노하우 등 온갖 생활 속 고민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씨 등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회원들의 발길도 늘고 있다. 회원들이 한번 찾더라도 하는 날에는 얼굴만 비죽 내밀고 대충 흙을 만지다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흙장난에 빠지듯 밤늦게까지 작업하기 일췌다.

김영현씨는 "부드러운 흙을 만지면서 도자기를 빚는 것이 좋아 시작한 일이 10년이 넘었다"면서 "물레를 돌리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말했다. 박옥희씨도 7년째 도자기를 만드는 재미에 푹 빠졌다. "아이들 공부 걱정, 살림살이 고민이요? 도자기를 빚는 동안에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라고 했다.

"서투르지만, 창작이든, 점시든 나만의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내고 나면 기분이 뿌듯해진다", "집에서 밥하고 빨래만 하는 아줌마로만 알았던 아이들이 '어, 엄마에게 이런 면도 있었네'하고 놀라워한다" 등, 모임 회원들의 도자기 예찬론은 끊이지 않는다.

오랜 기간 꾸준히 갈고 닦은 회원들의 실력도 전문가 수준이다. 상당수 회원들이 광주 여류생활도예협회전 등 전시회에 여러차례 작품을 낼 정도다.

30명 남짓한 작업실은 이씨 등의 세심한 손길을 거친 멋스런 도자기 작품들이 채워져 있었다. 한편에는 아직 초벌구이 전의 살구빛 작품들과 무늬를 새기거나 색깔을 입혀주 기만을 기다리는 작품들도 가득했다. 컵·접시·화분·달 항아리·다기(茶器) 세트 등 모양도, 종류도, 크기도, 색깔도 가지가지다.

쉽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도자기 작업은 물레를 돌려 모양을 만든 뒤 응달에서 말려 거친 부분을 다듬고 무늬를 새기거나 색깔을 넣는 일, 가마에서 적당한 온



도로 굽는 등 어느 과정 하나 쉽지 않고 시간도,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회원들은 입을 모은다.

"시작한 지 4개월 밖에 안됐는데, 반죽하고 밀대로 밀는 것도 힘들다", "밤을 세워 빚은 도자기를 첫 가마에서 실패했을 때 눈물이 나더라." "정성을 다하는데,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고 초벌구이에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부슬 때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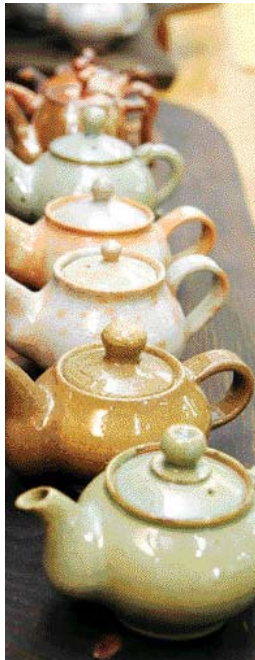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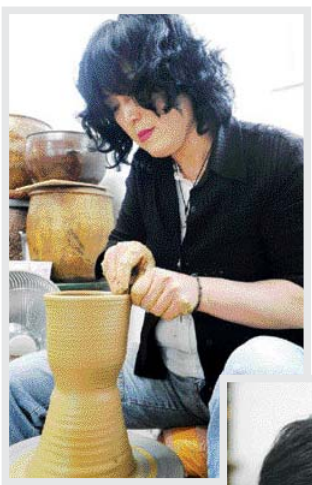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만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점시와 사발 그릇, 화분 등 생활 용기도 만든다.

도자 공예를 접한 지 4개월 남짓된 남정씨는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 시작한 일"이라며 "장인이 아닌 이상,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만들고 싶은 생활 도자기를 만들면 된다"고 했다.

공방은 더이상 이씨만의 작업장이 아니다. 도자기를 빚겠다며 찾아오는 회원들의 작업장, 회원들이 차를 마시면서 생활 속 경험과 애기들을 나누는 카페로, 도자기를 배우러 찾아오는 문화생활을 가르치는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공방 대표 이경희씨는 "조금 더 많은 도자기 작품을 만들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일부러 한적한 곳에 공방을 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도자기를 배우고 싶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도자기의 매력에 푹 빠진 '아줌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도자기 빚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회원들이 광주시 북구 두암동 이경희 대표의 공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www.pms.co.kr www.kimyoungh.co.kr

## PMS.김영편입학원

2010학년도 편입대비

- ★ 기초부터 알기쉽게
- ★ 편입영어 입문 및 기본과정
- ★ 문법, 독해 어휘(MT(조별토론학습))
- ★ 전대편입특별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

대학편입 대개강: 4월 1일

= 48년의 전통! 오랜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다! =

## 7.9급 공무원 전직렬

응시자격 7급을 일반직 약4000여명 공채

시험일: 지방직 9급 5월23일, 7급 9월28일 시행  
지방 7.9급 5월17일, 9급 5월17일 시행

개강 4월1일(주야 24시간)

본 학원 강의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세법, 회계학, 형법, 형소법, 교정학, 헌법, 복지학, 인사법, 소방법, 보건학, 상식, 기타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 경찰

수시접수중 (종합 및 문제풀이)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합격시스템	순경공채	특채
6개월 과정 • 2개월 완성 3회 반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25% D/C	1년 과정 • 2개월 완성 6회 반복학습 •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50% D/C, 교재 25% D/C	• 전의경 특채 240명 • 경찰 행정학과 특채 100명 • 경찰 특공대 특채 38명

※ 종합 1개월: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13만원 · 단과: 9만원

경전 메가경찰학원 www.gmega.co.kr

226-5050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